

공명선거로 헌정사에 금자탑을

민주정의당 시도지부 결성대회 치사

1981년 1월 26일

친애하는 ○○시(도) 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 민주정의당의 ○○시(도)지부 결성대회를 맞이하여, 나는 먼저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인 창당과업의 추진과 당의 업무수행 및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당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 우리 당의 창당 및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열광적인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민주정의당은 새 시대 새 역사창조의 주도세력으로서 영광된 제5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를 이겨내면서 역사와 국민의 이름 아래 굳게 서약했던 개혁과 창조의 새 민족사를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창당과업을 마무리하고 전진의 대오를 아직 정돈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곧바로 양대선거전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지 여러분들이 모여 시도지부 결성대회를 열게 된 것도 단순한 시도차원의 창당행사가 아니라 그보다는 당의 결속을 한층 더 다지고 전진대열을 더욱 굳게 가다듬어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자는 데 그 참다운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민정당의 총재직과 대통령후보를 수락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무거운 멩에를 메고 역사의 수레를 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일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수레의 뒤에서 동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밀어주어야 하겠기에 나는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점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정당을 하는 것이 어떤 권세나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참다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정당이란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아 참뜻을 옳게 모아서 국정을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는 정치를 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당정치를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의 모든 조직이 국민 속에 폭넓게 뿌리를 깊숙이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을 새로운 공화국의 전도는 우리 민정당이 이러한 정당으로 발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정당정치가 믿음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비판과 냉소의 대상으

로 정체되고 타락되어 왔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정당정치가 근본적으로 전근대적인 폐단과 악습을 시원스럽게 탈피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정치가 어떤 정파의 전유물로 타락하고 호양의 미덕이 없는 흑백논리 속의 극한대립 등이 급기야는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쓰라린 체험은 지난 날의 것으로 깨끗이 끝나야 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런 경험을 두 번 다시 겪어야 할 여력이 우리에게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새 정당을 자부하는 우리 민정당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와 「정의」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지니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더우기 지금은 선거라는 이른바 「정치의 계절」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과제가 쌓여 있는 우리에게서 더욱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 분명합니다.

거미줄도 합하면 사자를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해야 할 일이 아무리 힘에 겨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더욱 힘차게 나아간다면 능히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주도세력에 의하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그 뭉쳐진 힘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불타는 사명감과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국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신념과 용기의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에게는 또하나의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두 차례의 선거는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상징인 만큼 우리는 이들 선거를 조용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름으로써 우리의 헌정사에 빛나는 금자탑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선거가 부정하고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때, 선거 그 자체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5공화국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호도 그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새 시대, 새 역사의 여명은 시시각각으로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선거에 임하여 민주정의·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당의 이상과 목표를 널리 알리고 민주정의당이야말로 자주민족국가와 통일조국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과 청사진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며,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국가와 당이 빛나는 앞날을 위해 더욱 분발합시다.

영광의 승리를 위해 분투합시다.